

## “호머 덕분에 왕후귀족도 부럽지 않다”

### 수도원 도서관

중세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소설 속의 살인사건에 수도원 藏書館에 소장돼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異端의인 책 한권이 깊숙이 개입돼 있어 흥미를 끈다.

중세유럽의 기독교 수도원들은 책의 수집과 보관, 전승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장미의 이름」에 묘사된 대로 이들 수도원 도서관은 그리스나 알렉산드리아 등 고대의 고전들을 광범하게 수집함으로써 고전문화의 근대로의 전승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했다. 도서관사로 보면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의 왕립도서관, 아테네나 로마의 개인도서관을 중세 후반의 대학도서관에 연결시켜 주는 역사적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

수도원 도서관이 책의 역사에 끼친 또하나의 기여는 이른바 冊子本 형태를 널리 보급시킨 점이다. 열성적인 寫字生이기도 한 수도승들이 양피지에 베껴쓴 고전의 사본들은 파피루스로 대표되는 이전까지의 두루마리형태와 비교되면서 책의 새로운 형태로 굳어지는 계기를 이루었다.

중세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 도서관은 이탈리아 비바리움 수도원에 있었다. 정치가였던 카시오도로스에 의해 창설된 이 도서관에선 「신학 및 세속문헌 총람」이란 일종의 백과사전까지 편찬했는데, 이 책 속에서 카시오도로스는 “수도승은 原典의 筆寫에 열심히 종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圖書地圖

독일의 과학자 케플러는 1619년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 체계를 다룬 저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책이 교회의 검열에 걸려 禁書가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했던 것 같다. 자신의 책이 금서로 낙인찍혀 아무데서도 인쇄해 줄 곳이 없으리라는 케플러의 근심에 대해 베네치아의 한 친구는 편지를 보내 설사 금서가 되더라도 오히려 희귀해지므로 암암리에 널리 팔려 유행할 것이라며 저자가 더 큰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격려하고 있다.

그 친구의 말대로 17세기 유럽에는 일단 출판하기로 계획된 책이 금서가 된다는 것은, 곳에 따라 책의 판매를 위한 好조건일 수도 있었다. 독일에선 금서가 됐지만, 이탈리아에선 금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 책의 품질을 보장하는 후광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양지역이 섬기는 군주와 따르는 기독교 교리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령, 왕위계승전쟁이나 종교전쟁의 와중에서 출판할 수 있는 책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분명하게 제한됐다. 지역마다 신앙의 형태나 군주권 행사의 범위가 상이해 똑같은 책이라도 출판이 허용되기도, 불허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출판사학자 아이젠슈타인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마다 상이한 출판산업의 분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圖形化한 것이 바로 圖書地圖인데 이 도서지도를 통해 출판 및 인쇄 중심지의 이동상황은 물론이고 종교나 왕조의 경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 그림街的 작가들

18세기는 책의 역사에서 출판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하게 부각된 시기였다. 중산층의 형성으로 독서인구의 축적이 가능했던 영국의 18세기에 출판사는 상당수 작가에게 생계유지의 근거를 제공하는 일종의 고용주이자 생산주였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 출판사를 공장으로 표현하며 작가나 저술가들이 공장주들에게 고용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된 작가들의 존재는 흔히 三流文人의 거리로 일컬어지는 그림街的 출현에서 증명된다. 광산에 있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말해지던 18세기 영국 그림街的 작가들은 大筆이나 싸구려 번역 등에 종사하며 질나쁜 식사와 다량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의 한 독설가는 그림街에서 이루어지는 출판행위를 인쇄술의 힘을 빌어 벌이는 소매치기나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많은 작가들이 재능을 인정받게 되기까지 이 체제 속에 머물렀다. 출판업자가 저작자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휘두른 탓에 대부분 저작자들이 희생된 반면 출판사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명성을 얻기 전의 사무엘 존슨이 그의 시집 「런던」을 쓴 대가로 10기니 정도를 받은 데 비해 알렉산더 포프의 출판업자로 유명했던 헨리 린드트는 1758년 사망 당시 딸에게 4만5천 파운드의 유산을 남겼다. “나는 호머 덕분에 부유하게 살고 있기에 왕후 귀족도 부럽지 않다”라고까지 했던 포프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英譯本으로 벌어들인 돈은 9천 파운드였다.

# 출판저널

통권 제143호 / 1994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용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왕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탐구하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 □ 파리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 □ 파리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림 역고 옮김/3,500원

####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 神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 □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터 T. 스폴딩/정창영 옮김/7,000원

#### □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쇼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우 옮김/5,500원

####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 □ 나를 짚어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명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 丹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 □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중섭 편저/8,500원

####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 □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권태훈 옮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